



Huit Femmes

: 여덟 명의 여인들

Merci



Synopsis

한적한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 대학 진학을 위해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쉬종이 돌아온다. 행복과 일상만이 존재하는 집, 그 적막은 하녀 루이즈의 비명과 함께 깨진다. 바로 등에 칼이 꽂힌 채 죽어있는 가비의 남편이자 집안의 가장인 마티유 때문. 이 사건의 용의자는 여자 8명. 죽어있는 마티유를 본 후 집안의 여자들은 아비규환에 빠진다. 범인을 찾기 위해 용의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악을 금치 못 할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

·
·
·

한적한 대저택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터진 살인 사건,
이 아비규환 속 여자들의 사랑과 질투, 음모가 뭉쳐
만들어 낸 충격적 진실이 오늘 이 연극을 통해 드러난다!

Lettre de Persona

본 연극은 영화 '8명의 여인들'을 바탕으로 한 연극으로, 작품 속 여성을 통해 다양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 집안에서 하룻밤 사이에 드러나는 욕망과 음모를 통해 인간의 실체를 냉소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 인간의 무수한 욕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극을 관람하신 뒤 영화 '8명의 여인들'도 시청하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Cette pièce est basée sur le film « 8 femmes » et met en scène diverses figures humaines à travers les personnages de la pièce. Les désirs révélés au cours d'une nuit au sein d'une famille française représentent de manière cynique la réalité de l'être humain. Au cours de cette performance, vous auriez un aperçu de la myriade de désirs propres aux êtres humains. Nous vous recommandons de regarder le film « 8 femmes » après avoir assisté à notre performance pour une meilleure compréhension. Nous espérons que vous apprécierez notre pièce ! MERCI





페르소나 연혁

2007 연극 <대머리여가수> [La Cantatrice Chauve]

2011 연극 <셸부르의 우산> [Les Parapluies de Cherbourg]

2014 연극 <보잉보잉> [Boeing Boeing]

2015 연극 <르 프레농> [Le Prenom]

2018 연극 <톡톡> [Toc Toc]

2019 연극 <르 쥬> [Le Jeu]

2020 오디오북 <강아지똥> [Le Popo du Chiot]

2020 오디오북 <해와 달이 된 오누이> [Conte du Soleil et dew la Lune]

2021 오디오북 <푸른수염> [La Barbe-Ble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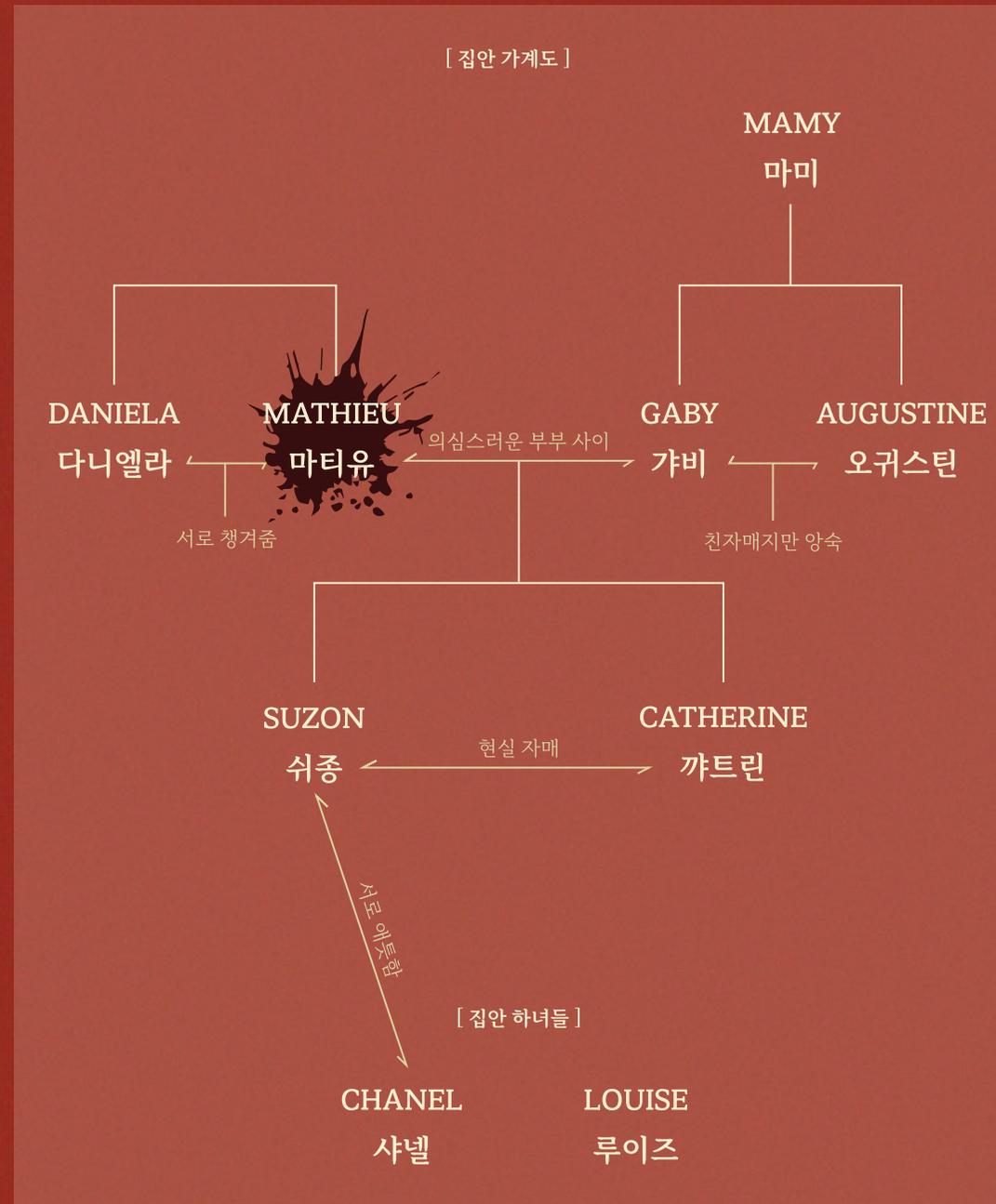
2021 오디오북 <흑사병에 걸린 동물들> [Les Animaux Malades de la Peste]

2022 오디오북 <결혼> [Mariage]

2022 연극 <결혼> [Mariage]



인물 관계도



임원진



이소연
학회장



조민경
부학회장 | 연출 팀 | 번역 부원

연출팀



김민서
연출 팀장 | 홍보 부원



강수진
연출 팀 | 번역 부원



공희은
연출 팀 | 번역 부원

조명음향팀



김희주
조명음향 팀장 | 홍보 부원



신희정
조명음향 팀 | 홍보 부원



남세희
연출 팀 | 기록 부원



도해령
연출 팀 | 번역 부장



이서영
연출 팀 | 기록 부원



양기빈
조명음향 팀 | 홍보 부원



이경하
조명음향 팀 | 홍보 부장



이영서
연출 팀 | 번역 부원



최슬아
연출 팀 | 기록 부원

배우팀



임현경 까트린 역
배우 팀장 | 번역 부원



김아현 가비 역
배우 팀 | 홍보 부원



김주영 루이즈 역
배우 팀 | 홍보 부원



김태연 샤넬 역
배우 팀 | 홍보 부원



박시은 마미 역
배우 팀 | 기록 부원



신 유 오귀스틴 역
배우 팀 | 기록 부장 | 회계



오승은 쉬종 역
배우 팀 | 번역 부원



이주영 다니엘라 역
배우 팀 | 번역 부원

인물 소개

Gaby 가비

45세의 부르주아 여성으로, 가족들보다는 자신의 안락을 중요시한다.
동생 오귀스틴과 어머니인 마미를 거두어 살고 있지만,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Suzon 쉬종

20세의 여성이며 가비의 두 딸 중 장녀이다.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던 중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집에 돌아왔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취조한다.

Catherine 까트린

탐정 소설에 심취해 있는 17세의 막내딸이다. 말괄량이에 철없어 보이나 귀여운 면도 있으며 아버지인 마티유를 매우 사랑한다.

Mamy 마미

가비와 오귀스틴의 어머니이다. 집안의 분위기를 잡고 있으며, 자신의 안락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다리가 좋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Augustine 오귀스틴

가비의 여동생으로 까칠하고 불평이 많은 성격이다. 가비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항상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불평하고 만족스러워하지 못한다.

Chanel 샤넬

50세 하녀이며, 쉬종과 까트린을 키운 장본인이다. 그만큼 그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 가족과 다름 없으며 집에 오래 있었던 만큼 많은 비밀과 정보를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한다.

Louise 루이즈

새로 고용된 25세의 하녀로, 젊고 아름다우나 자존심이 세며 무례한 면이 있다.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Daniela 다니엘라

파리에서 생활했던 35세의 아름다운 여자로, 마티유의 여동생이자 쉬종과 까트린의 고모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마티유의 저택에 찾아온다.

교수님 말씀

Chers professeurs, chers collègues, chers amis et chers étudiants,

C'est avec beaucoup d'honneur que les élèves du Département de français, tout particulièrement, les membres du groupe de théâtre Persona et moi-même, vous recevons ce soir, à l'Université féminine Sookmyung pour cette toute nouvelle représentation théâtrale en français!

La troupe a pour tradition de se produire sur scène, chaque année, en français, pour la plus grande fierté du département de culture et langues françaises et pour le plaisir de jouer dans la langue de Molière. Quelques dates mémorables ? En 2007 elles jouaient "La cantatrice chauve" ; en 2011 « Les parapluies de Cherbourg » ; 2014 « Boeing Boeing » ; 2016 « Le prénom » ; 2018 « Toc toc » ; et en 2019 « le jeu »....

Au cours des trois années minées la pandémie de covid-19, nos étudiantes n'ont pas été autorisées à se produire sur scène en raisons des règles sanitaires. Cependant Persona n'est pas restée inactive ! Les étudiantes ont tout de même réussi à produire en français, à budget ultra réduit et en ligne : " Mariage - La réunification des deux Corée" de J. Pommerat en 2021 ([결혼] 조엘 폼프라 / [Mariage] Joël Pommerat / 배리어프리 STSM Sur YouTube) et un audio book concernant Barbe Bleue <https://www.youtube.com/watch?v=aOO-vCsV2fw> en 2020.



De retour sur les planches l'an dernier avec « Mariage » - Extrait de « La réunification des deux Corée » de J. Pommerat ! – (Texte traduit en coréen par Me Lim Ae-Kyung, ancienne professeure de notre Département), elles ne sont pas peu fières de reprendre sur scène cette fois-ci et en français bien-sûr : « Huit femmes » - De Robert Thomas !

C'est avec beaucoup de plaisir que j'ai pu les encadrer, pendant des mois, lors de leurs exercices de préparation et leurs répétitions. Sachez que si toutes nos étudiantes apprennent le français, certaines d'entre elles ne le parlent pas encore couramment; et pourtant, vous en jugerez par vous-mêmes, elles sont toutes passionnées, et bien déterminées à vous faire passer une bonne soirée. Je suis, à ce titre, très fière d'elles, de leur passion et de leur engagement.

Un grand merci à tous nos généreux sponsors qui nous soutiennent chaque année et permettent à nos étudiantes de réaliser au mieux leur passion et ce spectacle. Du fond du cœur, merci !

Bonne soirée à vous tous !

Sincèrement,

Ida Daussy

Professeure de français.

Université féminine Sookmyung.



연습 사진



연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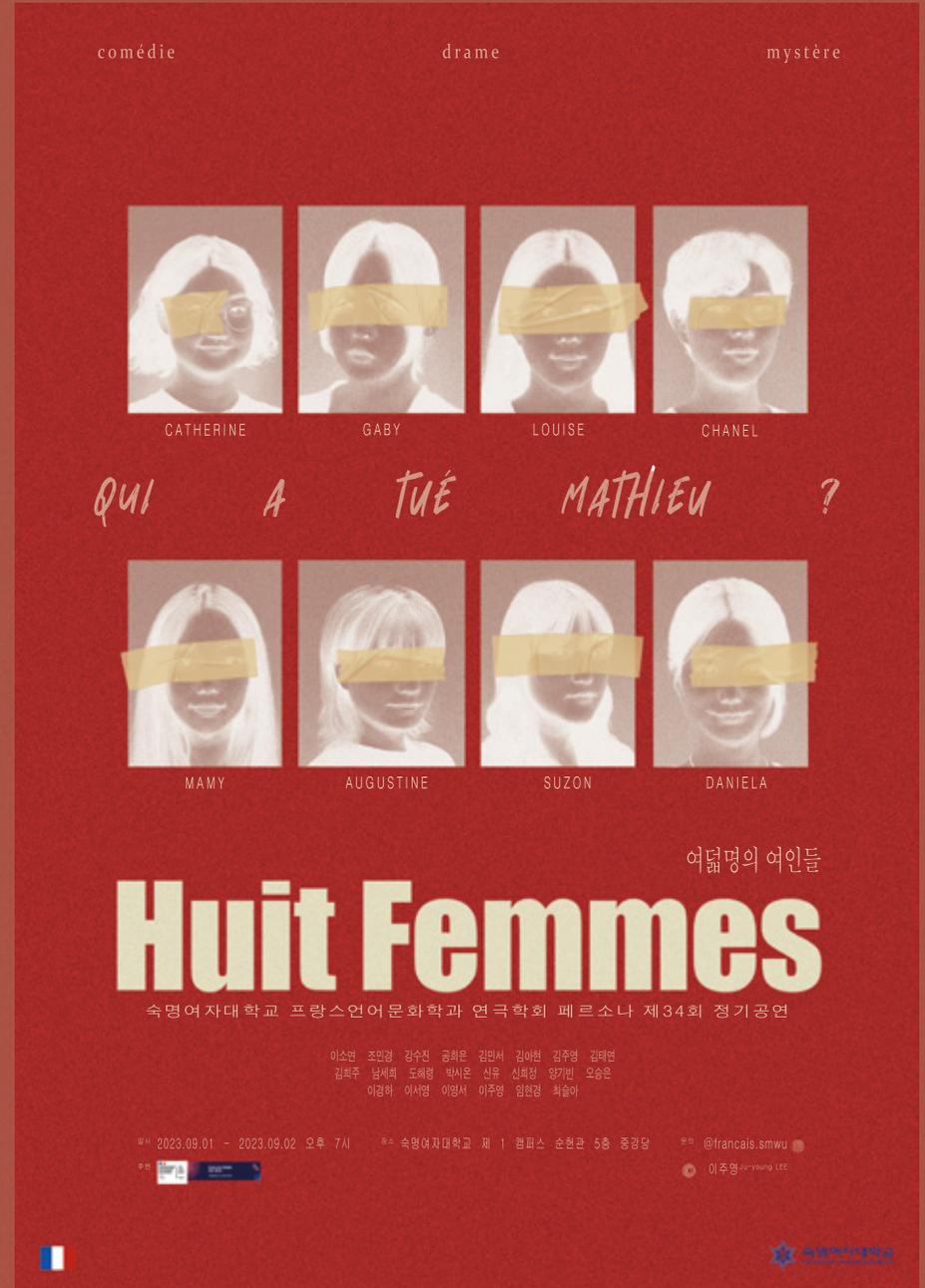


문화원 소개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는 프랑스 대사관을 대신하여 연구 및 대학과 과학 교류, 예술 문화의 영향력과 프랑스어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한국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창조 산업은 양국 문화의 활력입니다: 공동 추진력이 뚜렷합니다.

서울 프랑스학교와 하비에르 국제학교는 우리의 협력 관계에 중추 역할을 합니다. 어학 센터와 알리앙스 프랑세즈 조직망은 프랑스와 프랑스어 그리고 그 가치를 한국 전역에 전파하는데 있어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디자인 이주영
팸플릿 | 티켓 디자인 김태연